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를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독특한 내용과 형식으로 전례없는 규모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대회는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을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영웅적투쟁정신, 완벽한 비행술과 실전능력을 소유한 김정은빨찌산의 붉은 비행대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키며 전군의 장병들을 당의 훈련혁명방침관철에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그는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이번 경기대회를 조직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경기에 높은 정치적열의를 안고 참가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의 개막을 선포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장중한 주악에 이어 조선인민군 종합군악대의 군악제식과 연주회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적의 기상을 안고 비행기에 오르는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에게 출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지휘관조와 부대조로 나누어 진행된 경기대회가 시작되자 장쾌한 폭음이 울리는 속에 시뻘건 불줄기가 내뿜치며 은빛매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날아올랐다.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이번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통하여 태양의 성산



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데에 항공군안의 모든 비행부대들이 참가한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성대히 진행한것은 천만대적도 발아래로 굽어보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응단이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정의 장쾌한 승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경기에 참가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자신들의 견결한 전투정신과 실전능력을 겸열받는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꾸준히 련마한 비행술을 잘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경기대회성적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우승을 쟁취한 성원들과 단위에 시상하였으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의 폐막발언을 끝으로 경기대회가 끝났다.

세계전쟁사에서 처음으로 남강도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백두산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신앙으로 다진 맹세를 어떻게 실천해왔는가를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겸열받는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습격비행과 초저공비행, 특수기교비행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중전투비행동작들을 능숙히 수행하면서 정시에 편마한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기에 참가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저저마다 자기들의 특수기교비행술을 선보이며 정확하고 숨씨있게 리착륙을 진행할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렬한 축하의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의 치렬하고 열띤 비행

훈련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커다란 민족을 표시하시였다.

오전경기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된 경기대회에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백두산훈련열풍의 불가마속에서 다지고다져온 여러가지 전투비행동작들을 원만한 수행하며 푸른 하늘 아득히 용맹과 위훈의 비행운을 새겨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에 비해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의 비행술이 눈에 띄이게 높아졌다고 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경기대회를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조직한 목적은 전군이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과 본태를 굳건히 이어받아 침략의 원흉인 미제와 천미사대에 환장이 되어 동족대결, 체제대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피뢰매당을 총대로 거어이 총결산하고야말 열적의 투지에 넘쳐 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훈련혁명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술이 높지 못하면 용감하고싶어도 용감할수 없고 위훈을 세우고싶어도 세울수 없다고 하시면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당의 훈련중시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과 인민,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훈련전선에 산악같이 떨치나 실전능력과 지휘능력, 비행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가지 훈련경기들을 많이 조직하고 경기관청과 총화를 공평하면서도 엄격하게 진행하여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의 경쟁열, 훈련열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오전, 오후경기성적이 종합되고 등수가 결정되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시상식발언을 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하는 남강도 미제와 남조선 피뢰매당들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모략과 남조, 무모한 침략책동으로 하여 6.25전야와 같은 일촉즉발의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 반미대결전의 년대마다에서 공중비적들을 통쾌하게 타승한 고귀한 승리의 전통을 이어 자주적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해치려려고 우리의 정의로운 전군을 가로막아보려는 침략자들에게 우리 식의 비행전법으로 무자비한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붓고야말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열적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된다.

전체 참가자들은 《훈련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에혁명강군으로 만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속에 훈련의 집을 결정적으로 높여 그 어떤 전투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펄펄 나는 백두산호방이로, 통일대전의 영웅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